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원 9월 모의고사 직업탐구영역 디자인일반과목 해설지

[정답]

문 항	1	2	3	4	5	6	7	8	9	10
정 답	④	③	④	⑤	②	①	②	①	②	③
문 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 답	④	⑤	③	①	①	③	④	③	①	⑤

1. [정 답] ④

[해 설]

제시 자료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핵심요소” 라던가, “기호로 표현한 것” 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심볼마크’ 에 대한 설명이며, 제시된 그림또한 이에 맞는 것들이다. 즉, <보기>에서 심볼마크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되는데, ㄱ에서 구체적 표현은 상징적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ㄷ에서 ‘가독성’ 은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시각적으로 잘 인식되도록 만드는 일을 말하므로, 텍스트요소에 해당하는 것이다. 심볼마크에서는 텍스트요소가 필요없다.

2. [정 답] ③

[해 설]

제시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MP3플레이어라는 고유기능에 장식성(목걸이)을 융합한 디자인을 시도한다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즉, 두 가지의 용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융합디자인을 하고 있으며, 그 과정은 독창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치를 둘 수 있다. 참고로, 경제성을 고려할 때는 생산, 사용, 제작부품의 재료 등이 함께 고려되며, 독창성은 차별화의 개념으로, 심미성은 개인적 취향에 따른 치우침을 강조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고려가 필요하고, 합목적은 내적, 외적 합목적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정 답] ④

[해 설]

제시문은 컴퓨터나 휴대전화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회로기판을 재활용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것이 환경친화적디자인으로 승화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즉, 재활용재료를 환경친화적으로 디자인한 사례를 고르면 될 것이다. 1번에서 소리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2번에서 해바라기 형태도 역시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초록색 심벌마크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전통문양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다. 4번의 재생된 골판지의 사용은 신제품을 제작할 때 소비되는 열과 펄프 등의 나무재료를 절약할 수 있으므로 적당한 답이다.

4. [정 답] ⑤

[해 설]

키스 해링은 20세기에 팝디자인운동의 유형으로 거리벽화 (그래피티)를 이용해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였던 작가이다. 이 팝디자인 운동의 특징은 가벼움과 즉물성 등으로 요약되는 바, 제시문에서 설명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답지를 고르면 된다. 1번답지에서 유기적인 곡선이라는 표현은 해링의 묘사와 반대적이며, 2번답지에서 의 설명은 그리스 미술의 특징, 3번은 아르데코, 4번은 르네상스 시기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5. [정 답] ②

[해 설]

유리공예의 기법을 묻는 문제이다. 쇠막대에 고온의 액체상태 유리를 입으로 불어서 만들며, 가장 고전적이라는 설명은 ‘블로잉’ 기법, (나)는 램프워킹, (다)는 캐스팅에 대한 설명이다.

6. [정 답] ①

[해 설]

제시문에서는 공공시설물 디자인과 관련된 사례를 보여준다. 디자인된 결과물이 공공의 이익에 관계되는가, 아니면, 지엽적인 부분의 대상이 이익을 보는가를 생각하면 될 것이며, 유니버설디자인은 누구에게나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나 구조로 디자인을 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한다. 노약자 뿐 아니라, 여성, 아동, 왼손잡이, 장애인 등을 두루 고려하는 디자인을 유니버설디자인이라 한다.

7. [정 답] ②

[해 설]

선생님이 지적한 사항은 크게, 원색을 사용함으로 나타나는 보색대비에 의한 시각적 피로감과 흑백인쇄일 경우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시각적 피로감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보색을 사용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 즉, 현재 사용한 원색(혼합하여 만들 수 없는 색)의 채도를 낮추어 색의 기미를 부드럽게 만들면 된다. 흑백의 구분을 위해서는 무채색에만 존재하는 명도를 차이나도록 변화시키면 된다.

1번에서 보색대비를 이용한 잔상은 눈을 더 피로하게 할 뿐이다. 2는 정답이고 3은 면적대비를 위해 채도를 조절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4에서 색상의 채도를 낮

추는 것은 의미가 없고, 명도차를 주는 것이 옳다. 5에서 검정색과 남색은 모두 어두운 색이므로 차이가 없어서 흑백표현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

8. [정 답] ①

[해 설]

자료를 살펴보자. 주방의 싱크대나 찬장과 같은 그림이 제시되어 있고, 가구가 설치되어 있는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 사용자의 자세와 거리 등이 보여진다. 르 코르뷔지에가 창안한 ‘모듈러’의 개념이 적합하며, 단위화와 표준화에 의해 가구의 설치높이라던가 공간의 변형, 활용, 융통성, 이동성 등을 고려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다. ㄱ의 기능성을 고려한 규격화나 ㄴ의 인간공학적 고려는 모두 정답이며, ㄷ의 상징적 조형물의 기능은 주방가구에서는 모듈러개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ㄹ의 경우 사용자에 따른 디자인의 개별화역시 모듈러의 표준화측면에서 반대적 설명으로 보아야 한다.

9. [정 답] ②

[해 설]

영희의 말에서 ‘물질문명의 찬미’, ‘기계에 의한 미래 사회 건설’의 문구가 보이며, 이는 1차세계대전 직전에 결성되었던 미래파에 대한 언급이다. 미래파는 이탈리아에서 데페로, 보치오니, 카를로 카라, 등이 주된 인물이며, 이탈리아의 밀라노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모더니즘 유파로 분류된다. 1번 그림은 피카소의 ‘아비뇰의 아가씨들’이라는 작품으로 입체주의의 서막을 알리는 유명한 그림이다. 브라크와 함께 기억하자. 2번은 미래파 보치오니의 작품 ‘공간 속에서의 연속적인 단일형태들’이다. 역동성을 강조한 조각이며, 3번은 러시아 아방가르드로 분류되는 그림(구성주의 등), 4는 스페인의 아르누보 작가인 가우디의 ‘카사미아’라는 작품이다. 5는 백남준 등의 비디오 아트로 볼 수 있다.

10. [정 답] ③

[해 설]

멤피스 그룹은 제시문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은 특징을 갖는다. 작품을 고를 때, 장식적인 형태와 시적인 오브제의 역할을 하는 것을 고른다. 여기서 시적 오브제라는 뜻은 사물이 존재하는 이유인 원래의 용도(사용목적)를 숨기고 장식적인 기능이나 시각적 즐거움을 표면에 나타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네 개의 그림 중 ㄴ과 ㄷ에서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문항을 해결하려면, 평소에 많은 그림을 경험하여야 하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으므로, 이미지 검색을 생활화 하자.

11. [정 답] ④

[해 설]

(가)에서 보이는 키워드는 선, 반복, 직선, 시각적 입체감, 사선구도, 동적인 느낌, 양감, 굵은 선, 가는 선, 수평선의 반복 등이 된다.

(나)에서 보이는 키워드는 배경과 물체의 입체효과, 시각적 어른거림, 팝아트적인 옵티컬 느낌, 광학적, 평면, 사각면, 반복, 율동, 시각적 입체감, 물결 등이 연상된다.

이에 해당하는 보기를 고르면 되는데, ㄴ의 경우 입체물의 표현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한 눈에 찾을 수 있어야 하겠다.

12. [정 답] ⑤

[해 설]

그림의 왼쪽은 모저의 작품, 오른쪽은 클림트의 작품이다. 이들은 모두 오스트리아의 아르누보인 분리파(시세션)의 작가들이며, 이들은 실용주의를 중시하였고, 다른 지역의 아르누보와 달리 직선적 개념을 추구한다. 오스트리아의 아르누보에 대한 키워드를 생각나는 대로 노트에 적어보고, 연관된 작가의 작품을 다양하게 반복하여 감상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수능에서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은 문항이다.

13. [정 답] ③

[해 설]

제시된 그림을 보며 느끼는 것은 매우 ‘객관적’ 이어야 한다. 즉, 교과서에 나와있는 기본 개념에 맞추어서 느껴야 한다는 뜻이다. 제시그림에서 스스로 느끼는 직관적 키워드를 모두 뽑아서 써놓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3번답지에서 역대청에 의한 균형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이 개념이 나타나지 않는다.

14. [정 답] ①

[해 설]

(가)의 폴리우레탄은 고분자물질이다. 주로 합성물질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일론, 아크릴수지, 페놀수지, 멜라민 등이 익숙하다. 열 가소성(열을 가하면 부드러워지는 소재)으로 보면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스티렌, 폴리에틸렌, 나일론, 아크릴 등이고, 열 경화성(열을 가하면 녹지않고 타거나 딱딱하게 되는)수지는 페놀수지, 우레탄수지, 멜라민, 실리콘, 요소수지 등이다. (가)는 열경화성으로 견고한 형태의 가공에 유리, (나)는 부드러운 형태의 가공에 유리하다.

조형적 상태를 비교하면, (가)는 겹쳐 쌓는 구조의 형태이며, (나)는 장식성보다

는 기능성(쿠션을 위한 공기주입)을 강조하고 있다. (가)와(나)를 함께 비교하면 (나)는 (가)보다 부드러운 느낌의 열 가소성 수지인 (PVC)를 이용한 느낌이며 내 구성이 떨어진다.

15. [정 답] ①

[해 설]

지기 구조는 종으로 만드는 종이상자나 기물을 뜻하는데, 패키지 디자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개도의 양식과 접는 방향, 기본 구조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무게를 고려해야 하므로 견고하게 맞물리는 구조이어야 하고, 적재가 쉬워야 하므로 윗면이 편평해야 하며, 제품을 보호해야 하므로 역시 견고한 구조이어야 한다. (한 면이 뚫려있다면 견고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16. [정 답] ③

[해 설]

풍피두 센터에서 제시된 키워드는 신기술이 적용된 건축물이며, 철골 등의 선재로 만들었으며 그 선재의 느낌을 그대로 노출하여 완성된 것으로 정리된다. ㄱ의 엄숙하고 권위적 형태는 수직선이나 굵은 선, 넓고 낮은 명도의 면이 보이는 건축 등에서 느껴진다. ㄴ의 경우 전통적 건물의 리모델링이 아니라 처음부터 선재를 이용한 건축물의 조형성을 의도하여 지어진 건축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반복과 통일감, 재료와 구조의 특성이 노출되었다는 설명 등은 모두 옳은 것이다.

17. [정 답] ④

[해 설]

(가)는 핀란드의 특징적 경향인 전통공예정신과 실용성을 말하고 있다. (나)는 독일의 정형적 특징이 무엇인지 묻는데, 기능성이 단순한 외형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합리적 디자인이 그 답이다. 1번은 미국, 3번과 4번은 이탈리아 디자인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억해 둘 만하다.

18. [정 답] ③

[해 설]

(가)는 아이디어스케치 단계, (나)는 렌더링을 제시하였다. 아이디어스케치는 아이디어의 발상단계에서 나타나며, 이리저리 탐구하는 단계이므로 구체적이기 보다는 대략적 스케치로 짧은 설명문구도 함께 들어갈 수 있다. 렌더링은 디자인을 결정하기 위한 설득력있는 구체적 그림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1번 답지에서 최종적이라는 문구가 틀렸고, 2번은 수행, 속행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4는 테스트 모형에 대한 설명, 5는 목업모델링의 설명이다.

19. [정 답] ①

[해 설]

제시된 그림은 모두 아르데코 디자인의 대표적 작품이다. 기하학적 형태의 반복이 그 추구하는 본질이며, 기품있고, 무엇인가 풍요로운 듯한 느낌을 끌어내려 한다. 귀금속이 사용되기도 하고, 여유있는 폭과 두께의 크롬장식 들도 사용된다. 에너지와 속도의 이미지가 역동적으로 화면을 구성한다. 유럽의 아르데코는 좀 더 장식적인 면이 강하다. ㄷ은 아르누보의 경향, ㄹ은 표현주의의 경향을 느낄 수 있는 답지이다.

20. [정 답] ⑤

[해 설]

캐릭터는 단체의 성격을 잘 파악해야 하는 것이 첫째 조건이다. 여기서는 장학재단이라는 비영리단체의 성격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ㄱ에서 복잡한 형태는 단순한 형태로 수정, ㄴ에서 비 상업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야 한대로 수정, ㄷ과 ㄹ은 정답이다. 특히 ㄷ의 경우 캐릭터가 사용될 단체의 성격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다양한 대상에 적용’ 한다는 것은 메모지, 자동차, 익스테리어, 봉투 등의 응용(어플리케이션)형식을 설명한 것이다.